

Special Educators and Music Therapists' Recognition of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Class in Elementary School.

Jeong Ran Kim, music therapist

It has been passed more than 50 years of the history of music therapy on school aged children since there had been enforced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in United States 1975, which had made an important role of music therapist augmented.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rough reforming the law on March 2005 that therapist educator has to be allocated on the special class in general school, at least, patrol teacher is charged on that, which made possible to start music therapy as initial stage was realized in realistic way on the spot of school.

This research has primary concerns as following. The one thing is intended that figuring the opinions of special educators and music therapists involved with the music therapy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other thing is intended that making a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 on the spot of existing school, moreover, pinpointing at issue and suggesting the change for the better than now.

In order to undertake these intentions, I examined preceding researches and existing data, distributed the questionnaire involved the music therapy of elementary school to the people who are composed of special educators-65 persons and music therapists-30 persons from 18th October to second of November, and analyzed collect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s, it says that special educator and music therapist know well about the necessity of music therapy in elementary school and its effectiveness is manifested in positive way. Moreover, in order to systemize and promote a program of music therapy, what is most urgent thing is the completion of instrument and music therapy room and there are needed strong supports at the level of nation and institution.

It has become pervasive on the demand of therapy education by parents in all of the places involved with disabled children such as special school, special class, local welfare community, and early education.

This research shows that how therapy and education was connected as music therapy on the spot of the elementary school, and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of music therapy.

[keywords] music therapy, elementary school, after-school activity, music therapy education services, special education

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김정란, 음악치료사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개정된 특수교육계획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두어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시행하는 안을 발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특수교육계획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초등학교 음악치료와 관련된 특수교사들과 음악치료사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문헌들을 조사 검토하고,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특수교사 65명과 음악치료사 3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현황과 인식도, 기대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는 초등학교의 음악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악기 및 음악치료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관, 조기교육 현장 등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치료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치료와 교육을 접목시킨 음악치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음악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음악치료, 교육,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음악치료교육, 특수교육

2005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계획에서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두어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 시행하는 안이 발표되었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지역사회 복지관, 조기교육 현장 등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치료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날로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치료사들의 분야로만 인식되어 왔던 치료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은 현장교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정현주, 2003).

특수교육에서의 음악치료는 장애아동의 기능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 학습에 필요한 개념들을 습득하는 데에 치료적 또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 된다. 치료적 도구로서의 음악치료는 장애아동의 전반적인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각 발달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규명하는데 구조화된 음악 활동을 사용하는 것이다. 교육적 도구로서의 음악치료는 음악적 경험 내에서 학습된 기술들을 음악 외적인 환경에 전이시키는 것으로 이때 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강화시키는데 음악이 효과적인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정현주, 2005). 그러므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실시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2005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계획 개정 및 그에 따른 치료교육의 확산에 대한 사업 시행에 부응하여,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서비스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들의 인식과 이해도는 어떠하며 초등학교에서의 음악치료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현황은 어떠하며 당면한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 실시 장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설치되었으며, 장애 정도는 약하지만 일반학급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위하여 일반학교 내에 병설되어 있다(구본권 외, 2003).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의 정서 상태에 따라 적은 인원의 학급을 편성하고 학생 개개인의 장애 상태나 특성 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교육 목표 및 적절한 지도 내용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도 방법과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 환경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5).

특수학급에서는 장애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최적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수 학습을 이끌어가는 특수교육 체제를 제공해야 한다(전라남도 교육청, 1994). 특수교육 진흥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학급의 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과 치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5년 일부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인지체, 지체부자유, 자폐성을 포함한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그리고 심신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포함된다(국립특수교육원, 2005). 이 중에서 2005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 조사 연구에서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 가지 장애는 정인지체(57.6%), 학습

장애(14.5%), 정서장애(10.0%)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 후반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에 장애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는 사항이 포함되면서 예술 활동이 장애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인식되었다(정현주, 2005). 음악적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음악 수업과 달리 사회성, 인지, 의사소통이나 운동 기능과 같은 비음악적인 기술에 중점을 둔 음악치료를 접하게 되면서 장애아동들은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에 참여하게 되었다(Patterson, 2003).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음악교육과 음악치료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다른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음악치료 역시 장애아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실에서 아동의 능력이나 교육 목표에 따라 개별 치료 혹은 그룹 치료로 진행되었다(정현주, 2005).

특수교육 영역에서 음악치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아동들이 즐겁고 안전한 환경 내에서 쉽게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특수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음악 활동을 적용하는 방법 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음악치료는 이러한 특수교사들의 한계와 필요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성인영, 1999).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2005 서울 특수교육 계획”을 설립하고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과 학생 복지 여건의 개선을 위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와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특수학급의 대상 학생에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통한 개인별 최상의 교육 목표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별로 일괄적인 치료교육을 실시하는 대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따른 특수교육 서비스 외에 물리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치료교육 및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치료교육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치료교육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치료교육 활동의 경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치료교육 교사가 배치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므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치료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직접 지도해야 하는 형편이다(윤점룡 외, 2005). 따라서 더 많은 수의 장애아동에게 음악치료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음악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음악치료를 통한 아동들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 중 가장 먼저 특수교육 현장에서 음악이 사용된 나라는 미국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두 세기에 걸친 미국의 특수교육은 여러 가지 제도적 실행을 거쳐 오늘

날 완전통합적인 교육체계에 이르렀다(정현주, 2003).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법률과 교육 권리가 변화함에 따라 주로 집이나 기관에서 교육 받던 장애아동들이 지역 일반학교로 흡수되고 있다(Coyne 외, 2000). Johnson(1996)에 따르면,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1975년 공법(Public Law) 94조 142항이 통과되면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일률적 목적과 의도가 각 장애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Kostka(1993)는 이 공법의 영향으로 일반학교의 교과 과정에 음악을 포함한 특수 과목을 넣어 장애아동에게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미국 학교에서 음악치료사의 역할은, 진단적 평가를 하고 아동이 학교에서 학습 효과를 얻고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특정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목적과 목표 항목을 개발하고, 개발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진전 상황과 새로운 목적 및 목표를 위한 제안과 함께 개별화 교육안(IEP)을 재평가하는 것이다(Lathom-Radocy, 199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음악치료 역사는 오래되었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음악치료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리가 잡힌 상태라 할 수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지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중 음악치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고, 현재 음악치료가 실시되고 있는 일반 초등학교 소재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65명과 음악치료사 3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연구자 본인이 연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 작성이 의뢰되고 회수되었다.

2. 자료 분석

연구 결과는 SPSSWIN 프로그램(Ver. 1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악치료의 필요성에 관련된 문항 및 음악치료의 현황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 중 음악치료에 대한 관심도, 초등학교에서의 음악치료 필요성, 보수의 적정성, 음악치료 교재 및 악기 구비 정도, 음악치료 전문가의 필요

성, 음악치료 그룹 수, 음악치료 수업 횟수 등에 관한 문항 역시 리커트(Likert) 척도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또한, 특수교사용 설문지에 있는 서술형 보고 문항 한 개와 음악치료사용 설문지에 있는 서술형 보고 문항 두 개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응답된 문장에서 유의미한 단어를 발췌하여 이들 단어를 유사한 의미를 중심으로 다섯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1. 특수교사를 위한 설문지의 분석 결과

(1) 본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의 일반적 인적사항

본 연구에서 특수교사를 위한 설문에 응한 전체 응답자는 65명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가 3.1% 여자가 96.9%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6-35세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특수교사로 재직할 경력은 6-9년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음악치료와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 음악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음악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1>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구분	%
음악치료와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 경험	50.8
음악치료 수업 참관	60.0
음악치료의 필요성	95.4
음악치료의 효과성	90.8
음악치료 전문가의 필요성	73.8

* 각 문항별 가장 높은 응답 항목 및 백분율

(3) 서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중 31명만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치료 이해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7.7%로 나타났는데, 이들 응답자들은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나 교장 및 학부모

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경과 자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21.5%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으로는 음악치료실의 부재, 악기 및 도구의 부족, 경제적 지원 부족, 보조교사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세션 형태와 대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12.3%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음악치료의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개인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비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가 별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통합치료도 필요하다는 것 등이 있었다. ‘무응답’은 52.3%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운영에 대한 문제점

구분	N	%
무응답	34	52.3
환경과 자원	14	21.5
세션 형태와 대상	8	12.3
음악치료 이해도	5	7.7
내용 및 평가	4	6.2
합계	65	100.0

2. 음악치료사를 위한 설문지의 분석 결과

(1)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치료사들의 일반적 인적사항

음악치료사를 위한 설문에 응한 전체 응답자는 30명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여자가 100.0%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31-35세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치료사로 재직할 경력은 1년이 60.0%로 평균 1.57년이었다.

(2)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음악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자료와 음악치료 악기 및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음악치료는 치료와 교육 모두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고, 대부분의 음악치료사들은 세션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상 학생 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3 참조>.

<표3>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구분	%
음악치료의 필요성	100
장애아동에 대한 진단 및 특성에 대한 자료의 필요성	86.7
음악치료 악기 및 시설 확충의 필요성	60.0
치료교육적인 음악치료의 효과성	93.3
대상 학생 능력에 따른 세션 프로그램 편성	83.3

* 각 문항별 가장 높은 응답 항목 및 백분율

(3) 서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가.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문제점

음악치료사들의 특수학급 음악치료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 중 21명의 음악치료사만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 16.7%의 응답자가 ‘음악치료에 대한 이해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즉 교사 및 학부모들이 ‘치료’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거나 ‘음악치료’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과 자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30.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음악치료실의 부재 및 악기와 예산 부족 등을 말하는 것이다. ‘세션 형태와 대상’은 그룹 구성과 인원수 및 음악치료 횟수가 부적절하다는 것 또는 개인치료와 통합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16.7%가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내용 및 평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세션 평가의 필요성, 음악치료 진단의 필요성, 진행상황이나 활동 반응에 대한 보고서의 필요성 등을 말하는 것으로 6.6%의 분포를 보였다<표4 참조>.

<표4>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문제점

구분	N	%
환경과 자원	9	30
무응답	9	30
세션 형태와 대상	5	16.7
음악치료 이해도	5	16.7
내용 및 평가	2	6.6
합계	30	100.0

나. 음악치료사들을 위한 교과과정에 필요한 부분

음악치료사들을 위한 교과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는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16.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일반과정’과 ‘다양한 장

에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임상경험'이 13.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음악적 진단평가 도구'가 6.7%, '음악교육'과 '국악기 연주 방법', '장애아동 평가'가 각각 3.3%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40%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5> 음악치료사들을 위한 교과과정에 필요한 부분

구분	N	%
무응답	12	40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5	16.8
장애아동 임상경험	4	13.3
초등 일반과정	4	13.3
음악적 진단평가 도구	2	6.7
국악기 연주방법	1	3.3
장애아동 평가	1	3.3
음악교육	1	3.3
합계	30	100.0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 특수교사들의 대부분은 음악치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수교사들을 위한 음악치료교육이나 연수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특수교사들이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음악치료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음악치료 실행 횟수로는 주 2회가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 과정의 결정, 운영 계획 및 평가 방법은 대부분 학교장과 특수교사의 상호절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학교현장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점은 음악치료 악기 및 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초등학교 음악치료에 필요한 악기나 자료, 음악치료실 등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많은 특수교사들은 음악치료교육도 국가적 차원에서 공교육으로 전환하여 많은 아동들에게 음악치료의 기회를 확장하고 음악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많은 특수교사들이 음악치료를 위한 악기구입과 강사비 지원, 음악치료실과 같은 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간제 계약직이 아닌 정식 교사로 음악치료사를 고용하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거나, 교육청에서 음악치료사를 직접 고용하여 몇 개 학교를 묶어 파견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여, 음악치료사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고 학교에는 전문적인 인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의 음악치료사들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의 시행 목적을 ‘치료와 교육 모두’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특수교사나 음악치료사 모두 음악치료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는 개인치료보다는 그룹치료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음악치료 수업의 적절한 횟수로는 특수교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음악치료사들도 주 2회라고 답하였다. 한편, 대부분이 교실에서 음악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음악치료 교재나 악기 및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나 국가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음악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치료 과정의 계획이나 평가는 특수학급 담당교사나 특수교사, 학교장의 의견을 상호 절충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음악치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과 관련된 서술형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악치료의 효과를 알려야 하고, ‘치료’라는 용어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음악치료는 학교 현장에 맞는 대안적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음악치료사들도 학교에서 정식교사나 치료교사로 채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 음악치료는 대부분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수업의 연장이라 생각하여 산만해 질수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실의 완비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밖에 원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악기 및 교재의 구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학교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음악치료 역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지만 단순히 음악치료가 아닌 음악치료교육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내고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초등학교에서의 음악치료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음악치료가 실시되기 위하여 음악치료사가 순회교사나 정교사로 발령이 나와 하며, 음악치료실과 음악치료 수업에 필요한 환경 및 조건 구비를 위한 학교나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구본권 외(2003). 특수교육학 (제2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 국립특수교육원(2005). 특수교육 진흥법. 법률 제7395호. <http://www.kise.go.kr>법제처(2005).
특수교육진흥법. <http://www.moleg.go.kr>.
- 성인영(1999). 음악활동이 정인지체아동의 부적응 행동감소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점룡 외 12명(2005). 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 전라남도 교육청(1994). 특수학급 운영요람. 전라남도 교육청.
- 정현주(2003). 특수교육현장에서의 음악치료. 현장특수교육.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Coyne, N. M., Dwyer, M. L., Kennedy, M. & Petter, N. M. (2000). *The effect of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music on behavior and performance of the special needs student*. Saint Xavier University. Masters Theses.
- Johnson. F. (1996). Models of service delivery. In B. L. Wilson(Ed.), *Models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in school settings: From institution to inclusion*. Silver Springs, MD: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Inc.*
- Kostka, Marilyn. J. (1993). A Comparison of Selected Behaviors of a Student with Autism in Special Education and Regular Music Classes. *Music Therapy b Perspectives*, 11(2), pp. 57-60.
- Lathom-Radocy, Wanda(1998).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치료. 국제세미나 자료집.
- Patterson, Allyson. (2003). Music Teachers and Music Therapists: Helping Children Together. *Music Educators Journal*, 89(4), pp. 35-38.